

## ◆ (주)코리아코프 홈페이지 리뉴얼



금속제 물류기기 전문 제조업체인 (주)코리아코프의 홈페이지가 새롭게 리뉴얼 되었다.

## ◆ LogisALL 한국 국제물류 및 유통산업전 2008 참가

LogisALL은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KINTEX에서 열린 한국 국제물류 및 유통산업전 2008에 참가했다. 한국물류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KINTEX가주최하고 월드전람이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70개 물류 유통업체가 참여했고 많은 국내외 관람객이 방문한 대규모 행사였다.

LogisALL은 한국파렛트폴(주), 한국컨테이너폴(주), 한국로지스폴(주), 유로지스넷(주), 로지스올인터내셔널(주), 로지스올컨설팅엔지니어링(주) 6개사가 참가했으며, 각 사는 사업부문 홍보 판넬과 파렛트 및 컨테이너 등 실물 제품을 전시해 관람객의 뜨거운 관심과 반응을 얻었다.



LogisALL은 이번 전시회 참가를 통해 콜드체인시스템, 국제석재물류, LogisaLL Sanghai, LogisALL Qingdao, Sinotrans LogisALL 등 국내외 신규사업을 홍보하고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등 커다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2008 JPR - LogisALL 인적교류 프로그램



LogisALL 인재개발팀은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JPR(Japan Pallet Rental) 직원 10명을 초청하여 '2008 JPR - LogisALL 인적교류 프로그램(한국)'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까지 매년 2회 진행하던 회수사원 교류를 확대하여 전부문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인적교류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을 방문한 JPR 직원들은 서울 본사에서 LogisALL 그룹 각사 소개를 듣고 난 후

새로 오픈한 인천물류센터와 광양 석재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아산물류센터, 광양복합물류센터 등 전국 주요 물류센터와 지점을 견학했다. 또 양재 농협하나로클럽과 현대택배 등 거래처를 방문하여 LogisALL의 사업과 그 위상을 직접 눈으로 보고 감탄하며, 직영차량 관리와 물류정보시스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향후 LogisALL은 인적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오는 10월에 LogisALL 직원을 일본으로 보내는 등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창립 이후 24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움을 주고받으며 성장해 온 LogisALL과 JPR은, 인적교류를 통해 더욱 더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익혀서 Win-Win하는 사업 동반자로서 아시아 공동물류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 ◆ 영림목재(주) 남동공단 전시장 오픈



영림목재(주)(대표 이경호)는 4월 3일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 본사에서 학생용 원목가구 브랜드인 ‘아이-퍼니’ 남동공단 전시장 오픈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신한은행 등 각 은행 지점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아이-퍼니는 영림목재 맴버스 직원인 이라이브러리에서 생산한 제품이다.

오픈 테이프 절단 식에 앞서 이경호 사장은 “가족끼리 오픈식을 하려고 했으나 여러분을 이렇게 모셨다” 며 본사에 이미 마련된 주요 전시장을 돌며 일일이 설명했다. 테이프 커팅에 이어 영림목재 임원이 학생용 가구와 침대 책상 등에 대해 설명하고 4층에 마련된 영상홍보실로 향했다.

이 자리에서 이경호 사장은 “시니어(Senior)로 가구시장에 진출했으나 한 단계 내려 주니어(Junior)가구를 생산해 오고 있으며 이제는 유아용으로 내려오고 있다”며 “이라이브러리로 이름을 바꾸고 현재 공장 준공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 공장은 단위공장으로 국내에서 손꼽히며 국제적으로도 내놓을 수 있는 시설”이라고 말했다.

## ◆ 영림목재(주) 이경호 회장 세무서 일일 명예회장직 수행



이경호 영림목재(주) 대표는 제42회 납세자 날을 맞이해 성실납세자 자격으로 남인천 세무서 일일 명예회장직을 수행했다. 이날 이 대표는 인사말에서 세무공무원의 국가와 납세자에 대한 봉사의 마음자세를 배워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 ◆ 삼영물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인천중앙여상과 산학협정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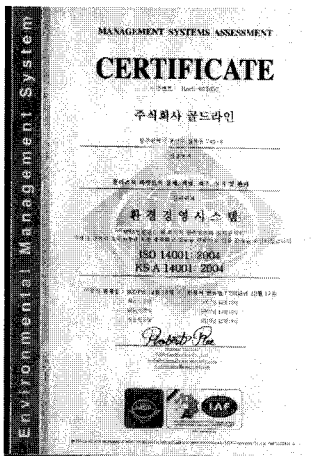
삼영물류(대표 이상근)는 4월 1일 인천중앙여상(교장 김애경)과 삼영물류 본사 회의실에서 산학교류 및 상호발전을 위한 산학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으로 삼영물류는 지역사회의 인재육성에 공헌할 수 있게 되고, 인천중앙여상은 회계정보 특성화 교육에 더욱 힘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 기관은 앞으로 ▲학생 취업 및 현장실습 지원 ▲고급기능 인재 양성에 따른 장학지원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 지원 ▲기타 산학협동에 필요한 사항 등 학생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기본으로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토록 했다.

사람중심 경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삼영물류는 최근 인천대 및 서울사이버대와 물류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학술·기술 협정을 맺은바 있으며, 학교측과의 공동연구 및 기술교류는 실제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삼영물류 고객들로부터 큰 호평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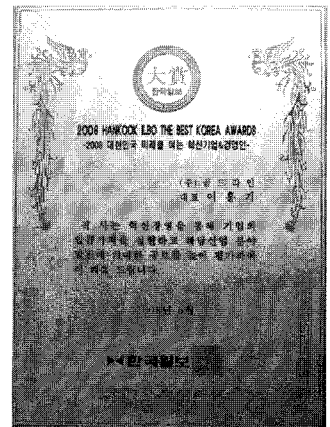
### ◆ (주)골드라인 ISO 14001 인증 획득



(주)골드라인에서 ISO 14001 인증을 획득하여 고 품질제품의 생산뿐만 아니라 환경친화적인 측면에서도 한걸음 앞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 ◆ 한국일보 2008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혁신기업&경영인 대상

물류혁신 고객감동의 물류 환경을 위한 정도를 열어나가고 있는 기업, (주)골드라인(대표이사 이흥기 회장)이 다시한번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혁신기업 & 경영인으로 한국일보 주최 혁신기업 대상 수상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 ◆ 이견산업과 인천종합에너지, 지역 냉난방열 수급계약 체결

이견산업(사장 이춘만)과 인천종합에너지(사장 유정석)는 이견산업에서 공정상 발생하는 잉여열을 인천종합에너지가 공급받아 경제자유구역지대인 송도를 중심으로 한 인천지역의 지역냉·난방열로 사용하기 위한 열수급계약을 체결했다.



본 사업은 이견산업이 합판 생산라인 일부를 칠레로 이전함에 따라 바이오매스(우드칩)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생산설비의 잉여열을 이용하는 것으로 고유가 시대에 폐목재를 대체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인천시민의 지역냉·난방열 공급에 기여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인천종합에너지는 인천시 도화동에 위치한 이견산업까지 약 13km의 열배관 공사를 내년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연간 60억원 정도의 열수급이 예상된다.

## ◆ 이견, 관계사간 전략적 합병 실시 이견산업-이견리빙, 이견창호-이견인테리어 합병

건축자재 전문기업 '이견' 이 관계사간 전략적 합병을 지난 4월 28일 공식 발표했다.

이견은 4월 25일 열린 이사회를 통해 이견산업이 이견리빙을 합병하고, 이견창호시스템이 이견인테리어를 합병하는 경영구조 개편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견은 기존 5개사 체제에서 '이견산업', '이견창호시스템', '이견환경'의 3개사 체제의 사업 구조를 갖는다. 이견에 따르면 솔 몬 조립사업 등 글로벌 소싱 능력과 높은 자산 가치에도 불구하고 건자재 시장의 침체와 신규사업모델부재로 정체성을 보이던 이견산업은 이견리빙과의 전략적 합병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과 새로운 신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마루 사업 역시 이견산업의 다양한 해외 네트워크와 원자재 수급 능력, 목재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견 창호는 합병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태양광, 태양열 등의 신규 사업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는 등 긍정적인 재무적 시너지를 예상하고 있다.

이건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합병은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치열해진 전자재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합병을 계기로 그동안 분산돼 있던 핵심 역량을 집중하여 장기적인 성장전략과 신사업의 성장 동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 용마로지스(주), 중국 상해 사무소 개소 해외 물류네트워크 확장의 교두보 마련



용마로지스(주)(대표 이원희)가 5월 30일 중국 상해에 중국사무소를 개소, 본격적인 국제물류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중국 상해사무소 개소식에는 이원희 사장 및 제휴사 비제이항운의 구본조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 현관식 행사와 함께 공식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용마로지스(주) 이원희 사장은 “이번 중국 상해사무소를 통해 해외거점 물류를 확장하여 앞으로 국내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상, 항공, 보세운송, 통관 및 보관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마로지스(주)는 2006년 4월 국제영업팀을 신설하여 국내에 구축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제 물류업무를 실시해 왔으며, 꾸준한 매출신장으로 새로운 물류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 ◆ 용마로지스(주) 창립 25주년 기념식 개최

용마로지스(주) 창립 25주년 기념식이 2008년 7월 1일 오전 8시 30분 본사에서 진행되었다.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근속(20년, 10년 근속), 공로상 시상과 감사패

전달을 하며 창립 25주년을 축하하였다.



이원희 사장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2008년은 중장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해이며, 이를 위해 목표의식을 가지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것과 원가절감을 통해 이익극대화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 ◆ 중국 공작기계 생산법인 두산기상, 제2회 China DIMF 개최 중국 공작기계시장 공략 가속화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공작기계 생산법인인 두산기상은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엔타이공장에서 '제2회 CHINA DIMF(DIMF: Doosan International Machine tools Fair) 2008'을 개최하고 중국시장에 새롭게 소개하는 신 모델 10개 기종을 포함한 19개 기종의 중국형 제품과 한국산 제품 6개 기종을 포함하여 총 25개 기종의 제품을 선보였다.



DIMF는 두산인프라코어가 해외시장 개척, 수주기반 확대, 딜러 영업력 제고 등을 위해 97년부터 2년마다 개최하는 자체 공작기계 전시회로, 중국에서 열리는 것은 2005년에 이어 두번째다. 이와 같은 자체 전시회는 제품개발 및 생산능력을 보유한 소수의 글로벌 업체들만 열고 있다.

### ◆ 두산인프라코어, 중국 제2생산기지 건설 중국 쑤저우에 지게차 및 미니 굴삭기 전용 공장

두산인프라코어가 지게차 및 미니 굴삭기의 중국시장 공략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지법인인 두산공정기계와 두산(중국)투자유한공사를 통해 중국에 제2의 생산기지를 건설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5월 13일, 중국 강소성 쑤저우시에서 제2의 중국 생산기지 역할과 함께 수출용 제품도 생산하는 글로벌 플랜트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쑤저우 공장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쑤저우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중국내 굴삭기 시장점유율 1위의 모체인 엔타이 공장과 함께 투톱체제로 중국시장 및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두산인프라코어는 1, 2 생산기지에 최적의 생산시스템을 구축해 쑤저우 공장은 지게차와 미니 굴삭기, 엔타이 공장은 중대형 굴삭기를 중심으로 전문화를 이뤄나간다는 전략이다.

### ◆ (사)한국물류협회, 해군군수사령부와 자매결연 맺어 민·군 물류기술 발전을 위한 협약



(사)한국물류협회(회장 서병륜)와 해군 군수사령부(사령관 소장 이성식)는 지난 7월 11일 진해에 해군 군수사령부에서 해양안보와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상호 협력을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의 우의증진을 위한 정기적인 상호방문, 민·군 물류기술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및 물류현장 견학, 군 간부의 물류관리사 자격증 취득교육 및 전역 간부의 취업알선, 해양안보현장 체험교육 등의 자매결연 내용을 협약했다.

이 자리에서 서병륜 회장은 “군에서 경제적 군 운영과 전투부대 중심의 군수지원을 위해 구성원과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강조하며, 군 물류의 현대화와 스피드한 군수지원체계로의 전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서병륜 회장을 비롯한 양원모(전 육군군수사령관), 이효진 협회고문과 김정식 코리아코프 대표, 이흥기 골드라인 회장, 김휘일 덕유 회장 등 10명의 물류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협회는 지난 2월 21일에 육군 군수사령부와 물류기술 발전 협력을 위한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다.

## ◆ 기술표준원, 물류표준설비 인증제 개정안 마련 ‘기업물류표준 활성화’를 위한 물류설비인증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물류표준설비인증이 앞으로는 공급자가 받는 물류표준설비인증(LS)과 물류업체 등의 수요자가 받는 물류경영시스템인증(LMS)으로 나뉜다. 또한, 물류 인증에 민간 참여도 허용될 전망이다.

지난 2004년 7월부터 실시된 물류표준설비인증제도(LS)는 유닛로드시스템 구성에

필수적인 물류 표준기기 또는 설비를 인증하는 제도로, 물류표준설비를 50% 이상 사용하는 기업에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을 부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류설비인증의 신청대상과 인증대상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물류표준설비의 공급자는 물류표준설비인증(LS)을 신청하고, 물류표준설비의 사용자는 물류경영시스템인증(LMS)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LS는 설비에 대하여 인증대상으로 하고, LMS는 현행과 같이 물류사업장을 인증대상으로 한다. 물류경영시스템인증(LMS)을 받은 업체는 홍보물에 물류경영시스템인증 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물류설비인증 위원회도 개편된다. 기존 평가위원회는 폐지되고, 물류설비 기술위원회와 심의위원회에 관련 기능을 추가하는 한편, 향후 민간인증기관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민간인증기관의 효율적인 인증업무수행을 위하여 민간인증기관은 인증관련 주요 사항을 보고해야할 의무를 갖게 되며, 앞으로 규정될 인증심사 및 인증 관련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 인증기준 및 수수료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인증을 받은 업체들의 부담도 줄인다. 표준화설비와 관련해 기존에는 정기검사를 1년간 1회에 실시했지만, 2년에 한 번씩으로 횟수를 줄일 예정이다.

## ◆ 종합물류기업 인증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인증기업 정기점검 완화, 제3자 물류비중은 높여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7년 7월 전면 개정한 「물류정책기본법」이 2008년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종합물류기업 인증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기점검으로 인한 물류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점검 받도록 되어있던 것을 2년에 한번만 받으면 되도록 완화하였다. 그간 업계에서는 매년 정기점검에 따른 서류준비, 비용부담 등이 과중하여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아울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3자 물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물류기업인증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인증심사기준상 배점을 조정하였다. 우수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 인증심사 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자 물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3자 물류매출 비중이 30%이상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고 제3자 물류관련 지표의 배점을 강화하였다. 또한, 물류전문인력 활용기업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전문인력 보유수준에 대한 배점 비중을 높였다.

한편, 현재 인증 종합물류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3자 물류 비중 등은 '10년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현재 종합물류기업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 국가물류 표준화 추진현황 한눈에 표준화 연구단 포털 구축...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국토해양부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함께 국가물류 표준화 추진현황 및 국내외 표준화 동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물류 표준화 연구단'의 포털 사이트(www.logisticsstandard.com)를 구축하여 6월 23일부터 공식 개설한다고 밝혔다.

'국가물류 표준화 연구단'은 지난 2007년 4월 수립한 국가물류표준화 추진계획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위탁)로부터 사업을 발주 받아 2012년까지 국가물류 표준 종합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번 시스템의 개발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류표준화계획의 수립·추진을 통한 획기적인 물류비의 절감 및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과의 물류표준화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IT기반 물류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일관수송 중심의 물류표준체계 구축, 물류정보화 및 보안체계 고도화와 물류선진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역량 강화 등 3개 부분의 세부과제와 일관수송용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시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물류 표준 종합시스템 개발 사업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오는 2012년 9월(4년 9개월)까지 정부와 민간이 약 196억 5천만 원을 들여 연차별로 추진하게 된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은 일관수송용 파렛트 규격 합리화, 물류보안 프로세스 표준참조모델 구축, 물류통계 DB 표준체계 개발 등이 있다.

## ◆ 환경·물류포장 국제 세미나 성공리 개최 포장에 환경과 물류에 대한 배려 높아져야

환경과 물류를 고려한 포장의 사례들이 늘고 있다. 개별 기업들도 자사 제품의 포장에 환경과 물류를 우선으로 배려해야 한다.

지난 5월 29일 KOREA PACK 2008 전시회가 열리던 KINTEX 전시장에서는 (사)자



원순환포장기술원(원장 김청)과 (사)한국포장기술사회(회장 이명훈) 공동으로 “환경·물류포장 국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포장 설계 및 개발에서 우선시되고 있는 환경과 물류에 관한 흐름을 살펴보는 좋은 자리가 되었다.

(사)자원순환포장기술원 김청 원장은 “앞으로의 포장에서 환경과 물류에 대한 배려는 필수적인 사항이 되고 있다”며 “이번 ‘환경·물류포장 국제 세미나’ 나 통해 국내 기업들이 친환경적이며 효율적인 물류포장의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